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은성*

<차 례>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의 특수성과 중요성
- IV.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화의 전제
- V.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
- VI. 결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기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어문생활사는,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로서, 그 자료가 국어 언중의 어문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순수 국어 관련 역사와 변별되며, 그 효용이 국어 정책과 국어교육의 설계와 실행에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까지 국어국문학 연구 전통에서 국어와 관련한 역사적 접근이 없

* 한양대 강사(nungil2@chol.com)

있던 것은 아니다. 국어의 역사, 국문학의 역사는 국어학과 국문학에서 전통적으로 중시 여겨온 연구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부분 문어(文語) 자료에 기반한 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국어사의 경우 하나의 특수 언어로서 국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적으로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적하는 데 연구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역사언어학’이라는 통시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언어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로서, 언어 자체의 시간적 변화에 강조점을 두어왔다. 그런데 국어 자체의 시간적 변화에 치중을 하다 보니, 정작 그러한 국어의 변화를 가져온 주체인 국어공동체 성원들의 국어생활의 역사적 변천과 그 사적(史的) 의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장윤희(2005:108)의 지적대로 국어사의 일부분으로서 다루어졌을 뿐, 이 분야의 특수성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성과는 많이 나오지 못했다. 국어로 생활을 영위하는 언중들보다는, 국어 자체가 전경화(前景化)되는 국어학 분야의 특수 관점이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¹⁾.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의 분야에서 국어(언어) 관련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도 없다. 이 주제가 워낙에 특수한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전문적 수준의 학적(學的) 기반이 이미 갖추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보편역사학으로는 포괄하기 힘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록 자료 중심의 정치·사회사 등 거시사가 주류를 이루던 역사학의 연구 관심이 생활사 등을 비롯한 미시사의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

1) 국어국문학의 연구전통에서 어문생활의 역사를 열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의 시작은 안병희(19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 ‘사용’의 문제를 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어사 연구와 그 전제와 시각이 뚜렷이 구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분석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국어사 연구에 비해 극소수로 이루어졌을 뿐더러, 어문생활사에 주목하는 주장은 최근래에, 그것도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장윤희(2005)를 참고할 수 있다.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우인식(1999)의 경우 생활사의 분야를 ‘가정생활’, ‘의식주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여가생활’, ‘언어생활’, ‘의료생활’, ‘노동생활’ 등 모두 8가지 범주로 나눈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학 분야에서 어문생활사라는 하위 범주가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설정일 뿐, 연구자가 일정한 결과 실질적 기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타’의 항목에 ‘언어생활’이 포함되고 만다²⁾.

- Ⓐ 가정생활 : 생활 양태, 생활 규범, 가계 운영, 혼인, 부부생활, 가족·친족, 가정의례
- Ⓑ 의식주생활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 Ⓒ 사회생활 : 향촌생활규범, 마을 의례, 사교생활, 군대생활, 관료생활, 유배생활
- Ⓓ 신앙생활 : 가내신앙생활, 마을신앙생활
- Ⓔ 여가생활 : 놀이·오락·축제, 문예와 예술생활
- Ⓕ 기타 : 언어생활, 의료생활, 노동생활

위의 분류 결과는, 역사학 분야에서는 생활사 기술을 위한 역사학적 방법론과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어문생활의 흐름을 세세하게 짚어 내어 구체적인 역사 기술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적시(適示)해주고 있다.

한 공동체에서 쓰이는 언어는 매우 핵심적인 문화적 구성소(構成素)이며, 공동체 성원들은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개체로 만들어진다

2)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마지막 부분의 3가지는 연구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기타로 정리하여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다(우인식, 1999:6).”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공동체에 대해 단시간 안에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그들의 어문생활을 이해하는 것일 수 있다³⁾. 같은 맥락에서 특정 공동체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위한 최적의 수단 중의 하나는, 그들의 어문생활의 사적 변천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어공동체는 우리의 어문생활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고, 이것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소홀했었다. 그리하여 국어국문학의 연구전통에서도, 역사학의 연구전통에서도 ‘어문생활과 그 역사’라는 연구 영역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개척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문생활사라는 연구주제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관련 학문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천착되지 못한 ‘미어있는 부분’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과 상통한다. 어문생활의 자료는 어문생활이라는 현상을 핵심 연구 목적으로 할 때 적극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다지기 위해, 어문생활의 자료를 두루 모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집적체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에 주목하고 이것의 사적 흐름에 관심을 둔 연

3) 세계 각지의 오지(奧地)에 들어가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민족지를 기술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자신의 조사현장(field)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해당 공동체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어문생활에 반영된 고유의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구는 그간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라는 주제적 특수성 때문에 역사학 분야에서는 어문생활사의 명목으로 하위 분류만 되어 있는 상태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어국문학의 경우 각기 국어사와 국문학사에 치중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국어언중들의 어문생활의 흐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국어생활에 주목하고 ‘국어생활사’라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 기술을 주장한 바 있다. 김광혜(1996)는 그 선구적 업적으로 들 수 있을 터인데,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발전을 논하면서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사적 변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발상은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발전적 변화가 곧 국어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신명선(1998), 이상호(2003), 김은성(2004), 배수찬(200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명선(1998)은 독립신문이라는 근대의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그때까지 구어 텍스트만 주로 생산했던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이 다른 모드(mode)의 문어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는 특수한 국면에 접어든 생활사적 사실을 텍스트언어학적 방법의 의거하여 풀어내고 있다. 이상호(2003)와 김은성(2004)은 조선 시대의 인간을 어문생활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편지 생활 문화라는 어문생활의 특수한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배수찬(2004)은 과거의 문헌에 드러난 읽기 이론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여 어문생활에 대한 당대인의 메타적 인식 분야를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국어교육학 분야의 어문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민현식(2003)에 이르러 세밀하게 체계화된 양상을 보인다. 민현식(2003)에서는 국어문화사라는 이름으로 국어독서문화사, 국어작문문화사, 국어화법문화사 등의 하위 영역을 구분하면서 국어 문화 전반의 사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문화사를 생활사와 동일시하는 주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민현식(2003)의 연구는 어문생활사를 겨냥하되, 문화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어문생활사를 구성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어교육학에서 어문생활사의 구성과 기술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대상이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체인 학습자의 독서, 작문, 화법 활동에 있기 때문이다. 국어 학습자가 구사하는 국어를 넘어서 학습자가 행하는 국어 활동을 국어교육학을 문제삼는 현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거시적 시각으로 국어 언중의 어문생활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국어국문학 분야에서도 거시적인 국어 관련 역사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조동일(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사와 국문학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어문 관련 역사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어문생활사'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국어생활사의 전반적인 구조까지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윤희(2005)는 어문생활사라는 연구 문제를 확실하게 학문적 영역으로 포섭하면서 어문생활사의 구성과 그 자료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국어생활사는 다음과 같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 ㉠ 국어사용사: 국어화법사, 국어작문사, 국어문체사, 국어독서사, 국어자료사
- ㉡ 국어교육사: 한글 습득 또는 한글 교육, 한시 교육
- ㉢ 국어정책사: 한글 사용 관련 정책과 법령, 기판
- ㉣ 국어사상사: 국어 및 한글에 대한 인식

장윤희(2005)는 이러한 어문생활사의 구성 아래 그 자료는 중세 국어 전·후기에 속하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어문생활사라는 연구 문제에 확고하게 학문적 가치를 부여하고, 상세한 내용의 열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세부적인 구성의 내용은 추후 수정과 보완으로 더 완전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면에서 설정 가능한 하위 영역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사를 일별해 볼 때, 우리는 어문생활사라는 연구 주제가 학문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선언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을 뿐 본격적으로는 연구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史) 구성 및 기술을 위한 원천 자료의 수집은 전혀 안 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당대의 어문생활을 입체적으로 담아낸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기초적인 토대 연구를 수행해야 할 시기이다. 어떤 자료를 어떤 감식안으로 골라내고 골라낸 것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집적해 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는 어문생활사의 양과 질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확보 및 자료 가공과 집적체 구축의 결과가 우수하다면, 후대의 어떤 시기라도 이 시기의 어문생활을 생생하게 복원하여 이해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문생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하여 미래의 국어 발전을 모색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의 특수성과 중요성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보인다.

첫째, '어문 자료'에 비해 어문생활 주체의 어문 생산-이해 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문 자료’는 대체로 국어사와 같은 순수 국어 관련 역사의 대상 자료로서, 기록이나 녹음으로 남은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를 의미한다. 즉, 이것들은 어문생활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는 국어가 형태나 의미상으로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문생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는 ‘어문생활 자료’의 기저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어문생활 자료’라고 칭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은 어문생활의 흔적이자 결과물일 뿐이지, 그러한 자료를 생산한 생산 주체의 ‘활동’의 실체성이 삭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이용하여 자세한 설명을 잇고자 한다⁴⁾.

㉞ 얇은 紗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 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조지훈의 <승무> 中)

㉞-1. 나는 용주사의 춤과 김은호의 그림을 연결시키고도 왜 시를 형성하지 못했는가? 이는 오직 춤을 세밀하게 묘사하면 혼의 흐름의 표현이 부족하고 혼의 흐름에 치중하면 춤의 묘사가 죽는,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 정신과 육체, 무용과 회화의 양면성을 초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조지훈의 <승무> 시작 노트 中).

㉞-2. 먼저 초고에 있는 서두의 무대묘사를 뒤로 미루고 직접적으로 춤 추려는 찰나의 모습을 그릴 것. 그 다음, 무대를 약간 보이고 다시 이어서 휘도는 춤의 곡절로 들어갈 것. 그 다음, 움직이는 듯 정지하는 찰나의 명상적 정서를 그릴 것, 관능의 샘솟는 노출을 정화시킬 것. 그 다음, 유장한 취타(吹打)에 따르는 의상의 선을 그리고 마지막 춤과 음악이 그친 뒤 교묘한 달빛과 동티오는 빛으로 끝막을 것(조지훈의 <승무> 시작 노트 中).

4) ㉞, ㉞의 예는 유영희(1999:34-35)에서 재인용.

㉞는 한 시인의 창작 결과물이다. 달리 하면 한 국어 언중의 쓰기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문 자료’의 일종인 문어 자료이다. ㉞-1과 ㉞-2 역시 쓰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㉞와 그 결과적 성격은 같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㉞가 쓰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라면, ㉞-1과 ㉞-2는 쓰기 활동의 최종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쓰기 주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우리는 ㉞-1과 ㉞-2를 통해서 ㉞라는 결과를 낳은 쓰기 주체의 쓰기 활동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한 언중의 어문 생활의 실체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㉞와 함께 ㉞-1과 ㉞-2까지 포함한 자료의 쌍이 필요하다. ㉞가 진정한 ‘어문생활 자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㉞-1과 ㉞-2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어문생활 자료’는 ‘어문 자료’와 엄밀한 의미에서 변별된다. ‘어문 자료’는 ‘어문생활 자료’의 기저로 존재하지만, 모든 ‘어문 자료’가 ‘어문생활 자료’가 될 수는 없다. 글을 읽고 글로 쓰는 활동과 말을 듣고 하는 활동의 주체의 활동 과정 및 활동 맥락에 대한 정보를 이미 포함하고 있거나 부가적인 정보로 첨부할 수 있는 자료가 ‘어문생활 자료’로 적합하다.

둘째, 어문생활의 자료는 변화무쌍한 양상을 보이는 역동체인 어문생활의 총체적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수집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하나의 실체물로서 국어 자료가 남기는 하지만, 그 자료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인간 행위의 역동적 연속체 속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료 선택과 수집 면에서 물리적으로 고정된 의복을 자료로 하는 의(衣)생활사 등 비교적 고정된 실체물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매우 까다롭다. 특히 이러한 점은 문어 자료에 비해 구어 자료에서 두드러진다. 문어 자료의 경우는 ‘글’이라는 실체가 남게 되므로 만약 보존만 잘 된다면 과거 시간대의 자료도 무리 없이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지나가버린 시간대의 문어 자료의 경우, 자료 선별 및 수집 단계에서 어문생활사 기술 주체의 특정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의 폐쇄 집합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기준에 준해 자료를 처리할 수는 있다⁵⁾. 그러나 구어 자료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의도적인 손질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한 일반 언중들의 말하기 행위는 소실을 전제로 하고 행해진다. 대중매체에서 행해진 말하기의 결과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장기 보존이 가능한 조건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제외한 말하기 결과는 그렇지 아니다. 시장 상인들의 고객 담화나, 의료 행위 시의 의사-환자간의 대화 등의 일상적인 말하기 결과는 목적적이고 의도적인 자료 수집 의지가 없다면 일회적으로 발화되고 사라지고 만다. 어문생활사는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총체상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 문어로 이루어지는 생활과 구어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된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선별 및 수집 과정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자료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상기한 어문생활 자료의 특수성 중의 하나인, 어문생활 주체의

5)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남는다. 과거 한 시기에 쓰인 문어 자료는 그것을 생산한 주체의 글쓰기 행위라는 어문 활동의 결과일 뿐이지 그러한 활동이 일어난 상황 맥락, 그러한 활동을 수행한 주체의 의도와 과정을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고, 쓰는 과정은 어떠했는가?”의 정보는 글쓰기 결과물에 부가된 또 다른 ‘작자 후기’가 쌓으로 존재할 때만 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대의 사람들은 간접적인 증거를 또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황적 추정으로 해당 글쓰기 주체의 글쓰기 행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문 자료’와 ‘어문 생활 자료’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어문 자료’의 경우, 그저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어문생활 자료’는 말하고 쓰면서 살아간 행위를 담은 자료이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즉, ‘어문생활 자료’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면서 살아간 인간들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은 자료’라는 점에서 ‘어문 자료’에 비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활동 자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메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필연적이다. 지금 현재의 어문생활 자료의 경우, 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하는 모어 화자인 국어 언증들에게 국어는 공기와 같은 것, 또는 육화(肉化: incarnation)된 실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문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힘든 과업일 수 있다. 과거의 어문생활 자료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미 어문생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에 의한 정보를 얻어내는 경우는 오직 기록으로 남은 것에 국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남은 기록물 중에서 어문생활의 일단(一段)을 드러내는 것들을 특유의 감식안으로 발굴, 조사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

한편, 자료제공자에게 양질의 자료를 얻어내기 위하여 힘든 과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 역시 수집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십상이다. 사고구술법 류의 내성적(內省的)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들이게 되는 품과 노력은 어문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어문생활의 주체인 언중(言衆)들에게 언증들의 설명과 메타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절차, 기대하는 정보의 수준과 양에 대한 매우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국어공동체 언증들의 어문생활 자료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급히 선택, 수집, 분류, 보존되어야 한다. 굳이 상론(詳論)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화에 차지하는 국어의 비중, 우리의 정신세계의 절대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어문생활의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즉시성, 동시성을 지닌 지금 현재 어문생활 자료의 특수한 성질까지 고려한다면, 자료 수집을 미룬다는 것이 곧 자료의 소실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국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어

문생활의 결과들은,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선택과 수집, 분류와 보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나름의 의의를 부여받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死藏)되기 쉽다. 국어 행위는 한 개인의 특수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한)국어공동체라는 특정 언어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문화적 행위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이러한 자료의 소실이 국어공동체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를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건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양상이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문제적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피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어문생활사 전체를 두고 볼 때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문생활의 세부적 양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된 이 시기가 문제적이고 결정적인 시기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전자책으로 글을 읽고, 문자 텍스트에 움직이는 동영상 텍스트가 동시에 제공되는 전자 텍스트를 생산하는 어문생활은 과거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문생활의 질적 변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자료의 소실 현상이 비단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어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문생활의 흐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살아온 일상 어문생활의 세밀한 양상이, 그 자체의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고스란히 축적되어 후대에 전해진 적은 거의 없다. 우리는 그간, 국어 생활 자체의 기록과 보존에 초점을 두지 않은 여타의 목적으로 기술된 저작물들을 통해서, 몇 조각 되지 않는 과거의 편린(片鱗)에 기대어 옛날에 쓰인 국어의 이모저모를 미루어 짐작해 왔을 뿐이다. 하나의 구조체로서의 국어의 모습을 파악하기에 충분치 못한 자료의 양으로, 과거의 우리가 어떻게 국어를 구사

하면서 살아 왔는지 살펴보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땅에서 쓰인 언어가 문어와 구어의 심각한 불일치의 역사 속에서 실제 모습 그대로 기록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조선 시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까지 구어와 문어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였던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는 불가능했다. 중국 한자어의 발음에 기대어 유사하게 표기하기는 했으나, ‘그럴 듯하게 옮겨 적음’이었지 ‘완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어, 더 나아가 어문생활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의 언어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들을 기록과 보존이 필요한 중요한 문화 자산이라고 파악하는 안목이 부족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의 문화적 초점이 말, 즉 언어에 완전히 비껴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말에 대한 수많은 속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민담이 구전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은 한낱 관심에 머물러, 꼼꼼한 기록, 광범위한 수집, 체계적 분류로서 우리의 언어와 어문생활을 메타적 시각에서 집대성하고 그 결과를 후대에 전하여 이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려는 시도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IV.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의 전제

1. 특정 관점을 전제한 자료 수집과 분류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존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특

정한 가치기준에 의한 '선택' 행위이다. 수집·분류·보존의 주체의 관점에 따라 국어 언중들의 일상의 언어생활의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자료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처리 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 작업이 될 수 없다. 대신에 그 관점을 뚜렷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타당한 과정을 거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합리화된 주관적 작업일 뿐이다. 어문생활사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는 것 역시 관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관점을 취한다면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역사 기술이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포함 범위는 넓고 그 깊이는 알아질 확률이 높다. 모든 분야를 전반적으로 개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된 특수 관점을 취한다면 그 선택은 달라질 것인바, 그 예로 '교육적 관점'을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과 이해는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양상이면서 동시에 국어 언중들이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국어 능력의 하위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국어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자 수행하는 국어 활동 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표현과 이해는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양상이면서 동시에 국어 언중들이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국어 능력의 하위 분야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국어교육학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자 수행하는 국어 활동 현상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어문생활사의 기초 토대가 되는 어문생활 자료는 국어교육에서 주목하는 국어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다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교육적 반성과 발전적 실행을 위한 실용적 목적의 자료 집적체로 구축될 수 있다. 즉, 어문생활사라는 역사 기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 집적체 구축보다는 역사 기술과 함께 이것의 현실적 실용성까지 감안한 특수 목적적인 자료 집적체를 구축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문생활 자료 구축의 결과가 국어교육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설계와 실행에 직접적으로 환류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또한, 인류 공통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행위의 심리학적 설명에 치우친 현재의 국어교육에 우리 언어 문화 고유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통의 설명을 보강하여 국어교육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특수 시기, 대상의 어문생활 자료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는 그 대상과 시기가 어문생활사 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 달리 수집되고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어문생활사는 시간적으로는, 국어생활이 시작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언어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는 국어 생활을 영위한 또는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어 언중을 대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정일 뿐, 물리적 한계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특수 시기, 특수 대상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어문생활사를 기술하고, 이러한 작업의 총합으로 국어 어문생활사의 전체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수 시기와 대상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앞서 제시한 ‘교육적 관점’을 시기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구축을 설계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적 관점으로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분류·체계화하는 작업과 직결되는 분야는 국어교육 분야이다. 국어교육은 제도적 차원의 국어교육과 비제도적 차원의 국어교육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자가 학교교육에서의 국어 교과 교육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취학 전이나 제도 교육 이후의 국어교육을 의미한다. 연구의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차원의 국어교육을 염두에 두고 어문생활 자료를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학교 국어교육을 전제사항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어문생활 자료의 원천적인 생산 주체가 한정되는데, 이 차원에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의 한정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중등 과정의 청소년기를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제도적인 학교 교육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인데다 이 시기에 국어 언중들의 어문활동이 교육 제도의 체계적 지원 아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발전하고 세련화된다. 요컨대 어문생활의 양적·질적 변화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매우 문제적이고 결정적인 시기인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은, 특수 목적의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의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교육적 목적을 전제하는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을 위해서라면, 교육해야 할 학습자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 수집·분류·체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매우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자료 대상을 청소년기의 어문생활 자료로 한정하게 되면, 교육적 목적으로 구안된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 구축의 본질에 걸맞고, 국어교육과 직결되는 실제적 효용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의 한정은 대상 차원의 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기 차원의 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역시, 어문생활사 기술 주체의 관점과 판단에 의거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교육적 관점’이라는 기준에 기대어 시기 차원의 한정을 시도해 보자면, 이러한 관점 아래서 어떤 효용을 바라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시기 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지금 현재의 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성을 초점을 둔다면, 지금 현재의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분류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당대’라는 시기 한정이 가능한 것이다. ‘당대’가 포괄하는 시간적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점이라는 중심 좌표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국어교육에서 주목하는 국어 활동에 대한 사적 변천을 보고자 하는 학문적 효용성을 강조한다면, 과거 한 시기를 택하여 그 시기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시기의 시간적 범위를 더 폭넓게 잡고 그 안에서 시기 구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수집 방식은 자료 수집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연구 기간 동안 청소년기에 속하는 국어 언중들에게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식과, 연구 기간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버린 국어 언중들에게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자료 수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07년 현재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국어 언중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적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술생애사적 방법이나 경험기술지를 작성하게 하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들의 청소년기의 국어생활을 복원하는 한편, 과거의 각종 자료에서 그들의 어문생활 결과물들을 발굴하여 수집, 체계화하여 자료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 체계화 작업 전통의 혁신: 평면성에서 입체성으로의 변화

전반적으로 어문생활 자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지만, 학문 분야에서 국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류 등의 자료 체계화의 전통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문생활 자료의 본격적인 수집과 체계화의 작업이 완전한 무(無)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기존 연구 전통을 비판적으로 참고하여 어문생활 자료 수집 및 체계화를 꾀하려고 한다. 기존 연구 전통은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문학 분야

국문학 분야의 경우, 구비 문학의 대상이 되는 신화, 민담, 전설 등의 설화를 현장 조사하고 채록하여 자료로 보존하는 방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이 작업은 <한국구비문학대계>라는 결과물로 그 결실을 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핵심 화소들을 공유하되, 지역·계층 별로 약간씩 상이하게 변이되어 존재하는 이야기 류를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요나 시조 등 노래로 가창되던 장르들의 수집 및 체계화의 작업도 이루어졌다.

2) 국어학 분야

국어학의 경우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어 자료 수집의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국어정보학' 또는 '말뭉치 언어학'이라는 특정한 국어학 하위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컴퓨터 등 정보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근래 들어 많은 연구 결과를 산출해 내고 있다. 이 분야의 독특한 자료

수집 및 체계화의 방식은 ‘말뭉치’ 또는 ‘코퍼스’라고 불리는 핵심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란, 언어를 연구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재료로서,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 자료의 집합은 전산적 처리를 전제로 한 데이터로서 이른바 기계 가독형 데이터(MRD : machine readable data)의 성격을 띤다(서상규·한영균, 1999:27-28).

말뭉치는 특수한 주제와 목적에 따라 방대한 양의 국어 자료를 선별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모두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가공하되, 그 과정에서 날자료(raw data) 상태의 언어 자료에 표준화된 마크업(mark-up) 작업을 실시하여 해당 언어 자료를 컴퓨터 처리 시스템에 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말뭉치에는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음성 말뭉치가 있을 수 있는데,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는 날자료가 글로 쓰인 텍스트이든 말로 구사된 구어 텍스트이든 간에 전사되어 문서화된 말뭉치를 의미하며, 음성 말뭉치는 실제 사람의 발화를 녹음하여 디지털화된 말뭉치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국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학문적 전통은 이미 국어 국문학의 분야에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자료 수집 및 분류의 전통은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평면성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심을 쏟는 국어 자료는 그와 같은 국어가 쓰이고 있는 상황맥락을 배제한 하나의 결과물인 국어 자체, 또는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등 문학 행위의 상황맥락을 배제한 문학 작품 자체이다⁶⁾. 그렇기

6) 물론, 구비문학의 경우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의 특성상 구연자와 구연 상황에 대한 특수한 상황맥락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바, 그것은 현실에서 향유되던 구비문학의 현장성이 연구의 필요에 의해 거칠게 복원되어 인공적으로 구연되는 텍스트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때문에 기록으로 전사될 수 있는 말의 흔적만 남길 뿐이지, 그러한 말을 생산한 주체인 언중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와 같이 국어를 구사하는 주체, 특정한 국어 생산물이 나오게 된 상황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기존의 자료 수집 및 분류의 전통을 평면성의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어는 국어를 구사하는 주체를 배제하고서는 온전히 파악될 수 없다. 국어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의 ‘말하는 국어 언중’, ‘국어를 말하는 언어 행위’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시각이 결여된 채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어문생활의 자료 수집 및 기록 등의 체계화 작업은 어문생활(國語生活)이라는 대상의 입체적 특성에 철저히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生’과 ‘活’, 두 글자 모두 어의상(語義上) 국어로 살아가는 주체의 국어 행위에 대한 입체적 접근을 전제한다.

4. 에틱(etic)적 관점과 이믹(emic)적 관점의 통합

어문생활 자료는 양적으로 최대한 확보된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선택의 과정 없이 모인 자료들은 무의미한 자료로 버려지기 쉽다. 그리고 수집과 분류 그리고 체계화의 단계는 연속적이고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의 단계부터 이미 분류와 체계화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서

것이다. 예를 들어, 무가의 경우 실제 공수를 내리면서 굿을 하는 현장에서 채록되길 보다는, 연구 목적을 위해 무가를 부를 수 있는 무녀에게 해당 무가를 부르기를 요청하여 그것을 채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현장성이 살아있는 상황맥락이 거세된 이와 같은 방식은 온전한 수집 및 기록과 보존을 담보하지 못한다.

라면 수집 단계에서 미리 분류와 체계화 구조를 반영한 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어문생활 자료 수집은 크게 보아서는 이미 외부자(outsider)로서 자료를 선별하고 의미화하는 연구자의 관점, 즉 에티컬 관점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국어 활동을 구성하는 구인(construct)과 상황맥락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기준점으로, 활동 주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기반한 기준(생물 연대, 성별, 나이, 거주 장소, 직업 등), 자료의 텍스트 특성(구어/문어⁷⁾, 자료의 문종 또는 말하기 장르, 텍스트의 길이 등), 자료의 정보 종류(직접/간접 정보, 통합/분리 정보⁸⁾)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점에 의해서 수많은 국어생활 자료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선별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삼아 분류,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마빈 해리스의 지적대로, 인간의 언어 행위는 에티컬 의미 차원과 에믹컬 의미 차원이 있다. 앞의 것은 인간발화의 관습적 또는 '부호적

-
- 7) 구어/문어 기준은 어문생활 분야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른 자료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점이다. 어문생활은 구분 기준에 따라 표현생활과 이해생활로, 또는 문어생활과 구어생활로 이분화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실제 분야 구분시 위계화되어, 표현-문어 생활, 표현-구어생활, 이해-문어생활, 이해-구어생활 분야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 차원의 세분화도 가능하다. 가장 하위 범주의 분야 구분으로, 독서생활, 작문생활, 화법생활 등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분야의 설정은, 세밀한 어문생활사 기술을 가능하게 하면서, 어문생활의 분야별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할 것이다.
- 8) '직접/간접 정보'의 구분은, 해당 어문생활 주체의 어문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자료가 그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즉, 어문생활 주체의 직접 보고나 기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나 추후의 간접적 정황 파악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 '통합/분리 정보'의 구분은 활동 주체의 활동의 전반에 대한 정보가 결과물 안에서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아니면 결과물과는 별개의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㉗와 ㉘-1, ㉘-2의 경우는 직접 정보이면서 분리 정보를 가진 자료에 해당한다.

code' 의미를 가리키고, 뒤의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자 받아들이는 발화의 깊은 심리적 의미를 가리킨다(유명기 옮김, 1996). 이에 의한다면, 어문생활의 기본 단위인 국어 활동은 본질적으로 에티컬 관점으로는 완전히 밝혀질 수 없는 대상이다. 어문생활의 이모저모를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문생활의 주체인 국어 언중의 시각과 인식, 그들의 사고 과정에 준해 어문활동의 내적 구조와 작용을 밝혀내어야 한다. 자료의 원천 생산자인 국어 언중들의 화법에 대한 메타 인식, 자신의 쓰기에 대한 평가, 쓰기 과정에 대한 쓰기 주체의 경험 등은 에티컬인 관점으로는 오롯이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어문생활의 내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질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때 내부자적 시각에서 어문활동을 이해하는 이미컬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에티컬인 관점으로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미컬 관점으로는 그 틀을 채울 양질의 정보 특히, 어문생활 주체의 특정 활동의 동기와 절차 등을 알려주는 정보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류 및 체계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틀을 짜면서는 에티컬 관점을 주로 취하되, 실제 국어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하위 범주를 다룰 때에는 이미컬 관점으로 내적 의미까지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V.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특정 틀에 따라 분류하

고 체계화한 최종 결과물은 어문생활 자료 집적체라는 실체로 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등 국어 관련 학문의 자료 수집 및 체계화의 장점과, 역사학이나 인류학의 사적 자료와 경험적 자료의 체계적 구축의 방법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한 어문생활 아카이브를 구축을 지향한다. 다음에서는 어문생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아카이브 구축의 틀 설정

먼저 어문생활의 자료들을 어문생활의 주체인 국어 언중들이 수행하는 어문 활동의 구조에 따라 분석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 이것은 풀어 말하면,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읽고 / 말하고/ 쓰느냐의 분석적 질문의 틀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을 자료 접근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누가'를 청소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왜', '무엇을', '어떻게'에서부터 하위 항목이 달리 설정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그 틀이 설정될 수 있다.

㉑ 독서 생활의 경우

- 청소년은 어떤 읽기 주체인가
- 청소년은 왜 읽는가
- 청소년은 무엇을 읽는가
- 청소년은 어떻게 읽는가
- 청소년은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읽는가

㉒ 작문 생활의 경우

- 청소년은 어떤 쓰기 주체인가

청소년은 왜 쓰는가
청소년은 무엇을 쓰는가
청소년은 어떻게 쓰는가
청소년은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쓰는가

이러한 틀의 세부 구분은 어문생활의 구체적인 분야들의 자료를 구축하는 영역의 구분과 다를 바 없다. 이와는 달리 따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각 자료의 영역에 대응되는 자료의 성격일 것이다. 즉, 그 자료가 어문생활 주체의 생생한 경험 자료이나 아니면 말하기 일반에 대한 메타 진술로 구성된 2차적인 설명 자료이나 등으로 구분되는 자료 자체의 성격이 틀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독서생활의 주체인 독자가 무엇을 읽는가를 다루는 영역에 속한 자료가 그 성격에 따라 서베이 자료인 2003-2005년 사이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같이 2차적 설명 자료일 수도 있고, 개인의 독서 이력을 진솔하게 말한 1차적 경험 자료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틀의 설정은 각 하위 어문생활 분야 별로 달라질 수 있다. 독서 생활, 화법 생활, 작문 생활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틀의 구조와 그 내용이 특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앞서 설정한 틀을 기반으로 하여, 어문생활의 총체적 국면을 포괄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동영상, 정지영상, 음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시, 가공할 자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 정지 영상: jpeg 파일로 변환
- ㉡ 동영상: wmv 파일로 변환

- ㉔ 음향: mp3 파일로 변환
- ㉕ 문서: hwp 파일로 변환
- ㉖ 실물: 정지 영상으로 제작하되 jpeg 파일로 변환

그런데 자료가 단 하나의 형식으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문생활의 총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자료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문생활사의 경우, 작문의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전사하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글을 생산한 주체의 내적 사고 과정이 담긴 mp3 파일과 컴퓨터로 글을 쓰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 실제 자필로 쓴 종이 작문의 실물을 사진으로 담아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화

수집하고 분류된 자료는 그 상태로 보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문생활이라는 입체적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자료로 가공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디지털화한 어문생활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카이브에 담길 어문생활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안인 더블린 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더블린 코어는 1995년 OCLC와 NCSA(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er Applications)가 더블린에서 개최한 워크샵에서 공준된 표준안으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의 서술 방법이다(박순철·변동률·이춘구, 2004).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㉗ 표제(Title): 제작자나 발행자가 자원에 부여한 제목

- ㉞ 제작자(Creator): 자원의 지적 내용에 주된 책임을 진 인물이나 기관
- ㉟ 주제(Subject): 자원의 주제나 그 내용을 기술하는 키워드 혹은 분류 기호(통제 어휘, 분류표 사용)
- ㊱ 설명(Description): 자원의 내용에 대한 초록, 목차 등 텍스트 기술
- ㊲ 발행처(Publisher): 자원을 현재의 형태로 이용가능하게 만든 실체
- ㊳ 배포자(Contributor): 자원 배포 권한을 가진 실체(도서의 배포자에 대응)
- ㊴ 발행일자(Date): 자원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짜
- ㊵ 유형(Type): 자원의 범주나 유형
- ㊶ 형식(Format): 자원의 매체 유형이나 규모
- ㊷ 식별자(Identifier): 자원을 고유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URI, DOI, ISBN 과 같은 문자 또는 숫자의 식별자
- ㊸ 출처(Source): 현재 자원의 출처가 된 원 소스 자원
- ㊹ 언어(Language): 자원의 지적 내용을 표현하는 언어(RFC1766)에 정의 된 2문자 국가코드
- ㊺ 관련 자료(Relation): 자원과 관련된 다른 자원과 그 관계 식별을 위한 정보
- ㊻ 내용 범위(Coverage): 자원의 지적 내용에 관한 지리적, 시간적 특성 요소
- ㊼ 사용 권리(Right): 저작권, 지적소유권에 관한 정보

어문생활 자료는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한 메타 정보와 일대일 대응 관계를 가지고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국어 말하기 동영상은 ㉞ 부터 ㊼에 이르는 메타 정보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된다. 그리하여 말하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에 대한 메타 정보가 한눈에 파악 될 수 있도록 한다.

4. 데이터 마이닝의 특수화

어문생활 자료는 매우 복합적인 정보의 집합체이다. 예를 들어, 한 개

인의 화법생활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작문생활의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로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자료는 부분적으로는 화법생활의 자료에 포함되고 동시에 작문생활의 자료로도 포함된다. 이 경우 자료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 자료가 화법생활의 검색에도 포함되고, 작문생활의 검색에도 포함되도록 해당 부분을 잘라 내어 코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답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검색 경로에 따라 어문생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유목화되도록 하려면 정교한 데이터 마이닝이 필수적이다. 정교하게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구축된 어문생활 아카이브를 이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어문생활 주체의 나이, 학력, 계층, 어문생활의 주요 주제에 대한 접근 및 분류, 어문생활의 결과물의 생산 시기 등으로 검색하여 특정 자료의 모음을 얻어 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어문생활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다. 그렇지만 어문생활사는 우리 민족이 한국어로 영위해 온 언어생활의 실체를 사적으로 조망하여,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어문생활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서 국어를 구사하지만, 국어는 시간, 공간, 국어공동체 안의 특수 하위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그 모습을 달리하는 역동체이다. 그러므로 국어 자료는 이와 같은 역동체로서의 본질에 입각하여 집적(集積)해야 한다. 어문생활의 살아있는 맥락이 삭제된 최종적인 언어 자료의 확보에 힘쓴 이전의 전통

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국어 언중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국어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아갔는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입체적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코퍼스가 평면적인 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문생활 아카이브는 국어 언중들의 국어 활동 그 자체를 통째로 수집하는 입체적 어문생활 자료로서, 문서·동영상·정지 영상·음성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연구의 토대 자료로 활용될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띤다.

어문생활의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때, 국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언중들의 세밀한 삶의 결을 사적인 맥락에서 복원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타의 생활사와 같이 어문생활사 역시 언중들이 어떻게 국어로 살아냈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문서류의 기록물과 더불어 실제 언중들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그들의 인식과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생생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집과 분류, 보존의 과정의 적절성과 체계성에 힘입어 해당 자료들이 결정적인 사적 사실들을 드러내는 자료, 일목요연하고 유연하게 유목화되어 존재하는 자료, 손쉬운 이용이 가능한 자료가 되도록 전문적인 손길로 골라내고 다듬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어문생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특정 시기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의 전모를 씨실과 날실로 정치(精緻)하게 교직(交織)한 어문생활사를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풍성한 자료가 뒷받침된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를 보유함으로써 우리의 국어 문화, 더 나아가 민족 문화의 수준을 한 차원 고양시킬 수 있게 된다. 풍성하고 펴진한 국어생활 자료의 수집은 곧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위한 원천적 자원을 확보하는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수준 높은 어문생활사를 보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어 문화의 수준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습자의 국어생활 속에서의 국어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의 견지에서 도 어문생활사의 기술 및 이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류는 교육적 기획과 실행의 차원에서 기초적인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 국어교육에서는 국어 능력의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학습자의 국어 능력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학습자 어문생활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류하는 기초 연구는 소홀히 하여 왔다. 대신에 이론적으로만 국어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등을 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론적인 접근은 실제 학습자의 국어 활동의 양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어문생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실 있고 현실적인 국어교육의 설계와 실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어교육은 국어 언중의 국어생활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문생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실제 국어 언중들의 어문생활에 대한 풍성한 사실을 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어문생활 아카이브의 확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어문 생활 자료 수집 및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사적 기술을 위한 전체 사항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추후 이론적인 부분의 보강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의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논문은 2007. 4. 25. 투고되었으며, 2007. 5.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7. 5. 30. 심사가 완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광해(1996), 「국어 발전의 상상」, 『선청어문』 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김은성(2004), 「〈규합한훤〉을 통해 본 격식적 편지문화의 전통」, 『어문연구』 1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27-151.
- 김주관(2004),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제36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박순철·변동률·이춘구(2004), 「민중생활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제36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배수찬(2004), 「읽기 이론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pp.297-324.
- 서상규·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 신명선(1998), 「독립신문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6·47·48, 연세대학교; 안병희(1992:277-255)에 재수록.
- 안병희(1992),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 우인식(1999),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 합집, 역사교육학회, pp.825-855.
- 유영희(1999), 「이미지 형상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2003),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2005),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pp.107-132.
- 조동일(2003),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 2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pp.69-90.
- 마빈 해리스 지음·유명기 옮김(1996), 『문화유물론: 문화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민음사.

■ 국문초록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은성

이 연구는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의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기술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어문생활사는, 국어로 영위되는 어문생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피볼 수 있는 ‘새로운’ 국어 관련 역사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어문생활사 기술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로서, 대상 자료의 성격과 중요성, 그리고 수집과 분류 체계화 방안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어문생활사 대상 자료는 어문 생활 주체의 어문 생산·이해의 과정을 포함하는 입체성과 복합성을 지니고 있고,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어문 생활의 일단을 담으면서 동시에 어문생활에 대한 메타적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면에서 많은 난점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문생활사의 기술을 위해서는 질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분류 체계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특정 관점, 시기, 대상의 한정과 외부적 관점과 내부적 관점의 통합이라는 기본 전체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어문생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큰 목표로 설정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어 어문생활사, 어문 생활, 자료 수집, 자료 분류, 디지털 아카이브

■ Abstract

A tentative Study for the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

– focusing on the systematical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Kim, Eun-su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describing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HKLL)” and, investigate a method for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roughly. HKLL is a ‘new’ history concerned with Korean Language, and it is the history based on this question : “how Korean Language users’ Linguistic lives changes?”

The target sources of HKKL is a cubic, complicated thing that is included the production(expression)-acceptance(comprehension) process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 and the meta information of the Korean Language Life. So, the gathering and classification of this sources is very difficult.

In this study, the basic presupposition is 1) the limitation of a specific perspective, period, target 2) the unitary approach(etic+emic). The gathering and classification of sources, this study’s focus, is converged to the final target: “the construction digital archive”.

[Keyword] History of Korean Language Life(HKLL), Korean Language Life, source collection, source classification, digital archive